



“원전산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원전산업과 지혜로운 공존을 통해 새로운 ‘천년 경주’ 모색

박재구

〈발전산업신문〉 기자

경주시는 원전산업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도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월성 원전과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원전 소재 지자체다. 또한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1983년 월성 원전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원전산업과의 인연을 맺은 경주시는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을 유치하고 지난해 본격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기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승인과 한수원 본사 이전 과정을 통해 원전산업을 둘러싼 갈등과 상생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전산업과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공존을 통해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첨단 과학·에너지산업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경주의 천년을 꿈꾸는 경주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올해 원자력 전담 부서 신설, 원전 안전 및 지원 강화

경주시는 1995년 원전 방재 관련 부서인 민방위과와 화생방계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시민과 원전관리담당으로 변경했고, 2005년 재난안전과 원전방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2006년에 국책사업 추진단을 신설해 3대 국책 사업인 방폐장 건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원전 소재 지자체 중 2번째로 원자력 전담 부서인 ‘원자력정책과’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경주시의 원자력 전담 부서인 원자력정책과(과장 김수식)는 원자력지원팀(팀장 한환식), 원전사업팀(팀장 이정환), 국책사업팀(팀장 이형락), 원전방재팀(팀장 박대선) 및 유치위원회 사무국(국장 손기복)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표 1〉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조직

원자력정책과장
○김수식 (원자력정책과 총괄)
원자력지원팀
○한환식 (원자력지원 업무 전반)
○최남규 (원자력클러스터 업무)
○손효영 (회계, 서무, 예산)
원전사업팀
○이정환 (원전사업 업무 전반)
○이윤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집행, 특별회계)
○안선영 (사업자지원사업 관리,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
국책사업팀
○이형락 (국책사업 업무 전반)
○서영호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 업무)
○정복숙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업무)
원전방재팀
○박대선 (원전방재 업무 전반)
○김종엽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및 교육)
○박인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원전 비상방송 및 대피시설)
○박병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유치위원회 사무국
○손기복 (유치위원회업무 전반)
○박영숙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추진)
○김대기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유치 업무)

▲ 원자력지원팀은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업무와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관련 업무를, ▲ 원전사업팀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 원전방재팀은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를, ▲ 국책사업팀은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및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 업무를, ▲ 유치위원회 사무국은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환식 원자력지원팀장은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를 통합해 원자력 전담 부서인 원자력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원자력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기관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방 재정 기여

경주시에는 1983년 월성 1호기 가동 이후 2015년 신월성 1,2호기가 준공돼 총 6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으며, 2015년 본격 운영에 들어간 방폐장과 올 3월



경주 방폐장 준공식(15. 8. 28.)

본사 이전을 완료한 한수원, 양성자기속기연구센터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이 유치돼 경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신월성 1,2호기는 개선형 한국표준형 원전의 최종 완성형으로 연간 158억kWh의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돼 경주시 세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11월 주민투표로 방폐장이 경주시에 유치돼 유치지역지원사업 55개 사업, 3조5,000억 원의 지원 계획 중 28개 사업이 완료됐고, 2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조 9,432억원이 지원돼 전체 계획의 55%가 완료됐으며,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을 계기로 남은 1조 4,858억원의 사업도 조기에 지원돼 경주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6억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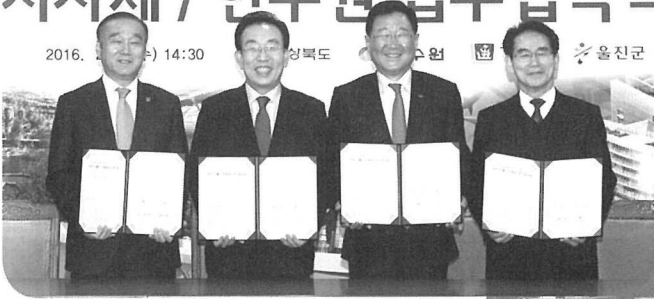
이는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신월성 1,2호기 준공으로 경주시 재정에 대한 원전 기여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은 경주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월성원자력본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경주시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은 2,690억원에 이른다.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한환식 원자력지원팀장은 “대기업인 한수원의 경주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경주시와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며 “경주시와 한수원 간 상생협회의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한수원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온배수열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 한수원 업무협약식

사람들



2016. 2. 3. (수) 14:30 | 경북도 | 한수원 | 울진군

‘원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한수원 업무 협약식(‘16. 2. 3). (왼쪽부터) 최양식 경주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석 한수원 사장, 임광원 울진군수.



경주 방폐장 전경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지원 사업 시행

경주시는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폐

장 1단계 시설 및 신월성 1,2호기 준공과 한수원 본사 이전을 계기로 역사의 보전과 개발은 물론 미래 첨단 과학·에너지 도시로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 등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명실 공히 고급 인재와 첨단 과학, 인류 발전의 근간인 에너지 중심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환식 원자력지원팀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을 계기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경주에 입주해 경주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를 위해 경북도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정책에 발맞춰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